

<헌화가>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가치

하 경 숙

(선문대학교 강사)

I. 머리말

II. <헌화가>의 수용 양상

III. <헌화가>의 현대적 변용

1. 현대소설 - 박범신의 <은교>

2. 현대시 - 복효근 <헌화가에 부쳐>, 홍해리<헌화가>, 권천학 <수로부인 1>, 곽재구<헌화가>

3. 뮤지컬 - 뮤지컬 <수로부인>

IV. 현대적 변용의 가치

V. 맺음말

<국문 요약>

<헌화가>는 신라 제 33대 성덕왕(聖德王) 때에 어느 견우노옹이 지은 4구체 향가로 순정공의 아내 수로부인이 천길이나 되는 바닷가 절벽 위에 있는 꽃을 탐내자 신원 미상의 소를 몰던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치면서 부른 노래이다. <헌화가>는 향가 작품 중에서 가장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지니고 있어서, 고도의 상징적인 코드와 철학을 이해해야 하는 다소 규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헌화가>는 단순히 신라의 향가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로의 변용(變容)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시공을 초월하여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헌화가>는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작품의 위상을 확장시켰다.

그 중에서 현대소설, 현대시, 뮤지컬을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데 <헌화가>는 구전되다가 문자로 정착한 후 신이성과 흥미성을 바탕으로 그 유연성(柔軟性)이 검증되어서 현대에까지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인의 생활상을 실제적으로 그려내는 한편 시대상황을 충실히 묘사(描寫)하면서 대중의 생활태도를 반성하게 하고 있다.

향가 <헌화가>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이나 콘텐츠에서는 작가의 세계관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대중들과 이분(二分)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장르로의 소통은 원 텍스트의 매력과 가치를 훼손(毀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전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접근을 전제로 해야 한다.

주제어: 헌화가, 수로부인, 현대적 변용, 재창조.

I. 머리말

<헌화가>는 신라 제 33대 성덕왕(聖德王, 690년~737년, 재위: 702년~737년)때에 어느 견우노옹이 지은 4구체 향가이다. 이 노래는 성덕왕 때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이 자신의 아내 수로부인이 천길이나 되는 바닷가 절벽 위에 있는 꽃을 탐내는 중에 길을 가던 신원 미상의 소를 몰던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헌화가(獻花歌)>는 『삼국유사』 권2 <수로부인(水路夫人)>조(條)에 <해가(海歌)>와 함께 실려서 전하고 있는데 그 신비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향유되고 있는 작품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화자를 '암소 고삐를 잡고 있는 노인-不知何許人-건강한 청년들도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능히 해낸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의 존재는 해석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인물로 설정되면서 <헌화가>가 가진 노래의 성격을 명쾌하게 규정짓는 일에도 장애를 가져오게 만든다. 그러나 이 노래의 성격을 단지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에 도취한 시골의 늙은 노인이 자신의 여러 상황을 잠시 판단하지 못하고 상대방 미모의 수로부인을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면서 부른 가요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 그러나 <헌화가>는 향가 작품 중에서 가장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지니고 있어서, 분석을 하기에는 고도의 상징적인 코드와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헌화가>는 대단히 규정하기 어려운 작품으로 설화적인 요소, 문화, 심리, 이념의 텍스트들이 얽혀서 그 신이성(神異性)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헌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더불어 70여 편을 상회하는 논문이 발표 되었고, 가요해독과 관련해서는 백여편이 넘는 연구성과를 이루었다.²⁾ 그렇다고 해서 <헌화가>에 대하여 그 어떤

1) 박노준, 「향가, 그 현대시로의 변용(I) - 「헌화가(獻花歌)」, 「서동요(薯童謠)」를 대상으로, 『한국시가연구』 5권, 한국시가학회, 1999, 85~86쪽.

기술이나 논의가 확정되었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여전히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논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헌화가>를 사랑의 노래, 의례(儀禮)와 관련된 무속(巫俗)적인 노래 혹은 불교적 요소와 관계가 있다는 다양한 견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사회의 연구에서는 <헌화가>가 다산(多産)과 풍요(豐饒)를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성기신앙의 상징 체계가 내재되어 있는 노래라고 주장하였다.³⁾ 이 논의를 바탕으로 <헌화가>에 대하여 한층 진화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학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사적 즐거리를 지닌 경우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구성된 배경설화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에 다양하게 전승(傳承)되어서 수용되고 변용되었다.<헌화가>에 담긴 문학적 소재는 단순히 규정할 수 없는 신이성과 흥미성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에 까지 이르렀고, 다양한 장르로의 소통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달

-
- 2) 임기중,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2;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부, 1982;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 김광순, 「헌화가」,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9;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성기옥, 「<헌화가>의 신라인의 미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9; 윤경수, 「헌화가의 제의적 성격」, 『향가 여요의 현대성 연구』, 집문당, 1993; 예창, 「헌화가에 대한 시론」, 한국시가문학연구, 『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 논총』 2, 신구문화사, 1983; 신영명, 「<헌화가>의 민본주의적 성격」, 『어문론집』 37권, 민족어문학회, 1998; 현승환, 「<헌화가> 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시가연구』 12집, 2002; 이승남, 「수로부인은 어떻게 아름다웠나-삼국유사 수로부인조의 서사적 의미소통과 헌화가의 함의」, 『한국문학연구』 3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소, 2009; 유경환, 「헌화가의 원형적 상징성」, 『새국어교육』 6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신현규, 「수로부인 조 수로의 정체와 제의성 연구」, 어문논집 32집, 중앙어문학회, 2004.
- 3) 구사회, 「<헌화가>의 ‘자포암호’와 성기신앙」, 『국제어문』 제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201~233쪽.

되고 있다. 하나의 모티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이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속에 내재된 삶의 방식이나 가창(歌唱)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헌화가>는 단순히 향가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로의 변용(變容)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시공을 극복하여 문화적 환경이 변화하고 급속한 매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여 대응하면서 주제가 확장되어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지켰다. 그 중에서 현대소설, 현대시, 뮤지컬을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헌화가>의 실체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흥미와 스토리를 재현하면서 그 위상을 높이고 원전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향가<헌화가>가 변용된 장르를 살피면서, 작품이 지니고 있는 함의(含意)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을 살아가는 창작자들이 <헌화가>를 재현(再現)하는 방안과 이해의 안목을 살피면서 <헌화가>에 대한 상징적 의미체계를 파악하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헌화가>의 수용 양상

문학작품은 수용하는 계층의 가치관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문학적인 텍스트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텍스트 사이의 길을 여는⁴⁾행위야말로 텍스트를 위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텍스트의 자체의 논리 때문이라기보다는 독자들과 시대의 요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쓰기는 이제 활자 텍스트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장르에 걸쳐 몸 바꾸기(remaking)를 거듭하면서 이를 텍스트의 구성 원리로 구조화하고 있다.⁵⁾

4) R.스콜스·김상욱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하우, 1996, 32쪽.

향가의 시정신은 면면히 우리의 혈관 속에 타고 흘러, 고려속요(高麗俗謠)와 시조(時調)를 거쳐 마침내 현대시에까지 녹아 들었다. 향가(鄕歌)의 시대는 타락하지 않은 언어의 힘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⁶⁾향가는 우리말로 된 최초의 기록문학⁷⁾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있다.

<헌화가>는 『삼국유사』 권2 ·<수로부인>조(條)에 실려 있다. <수로부인> 조에는 <헌화가>와 그 배경설화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海歌)>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향가 <헌화가>역시 다른 노래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동안 구비(口碑)전승 되면서 유등과 적층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된 작품이다. 향가 <헌화가>역시 다른 시가(詩歌)들과 마찬가지로 설화를 바탕으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설화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고, 설화의 일부분으로 향유되고 있다. 향가의 배경설화 혹은 배경담으로 불리어 온 삼국유사의 서사문맥은 단순히 향가의 창작 배경만이 아니라 향가의 전승 과정과 작가의식, 편찬자의 시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⁸⁾향가는 구전(口傳)되다가 고려 중기에 와서 일연(一然)에 의하여 문자로 정착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것을 신라 시대의 언어나 곡조(曲調)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 향가는 고려시기에 정착되면서 개중에는 개별 작품의 이름이 붙여진 것도 있다.⁹⁾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지금의 명주)로 부임하는 도중에 바닷가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 곁에는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서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데, 높이는 천길이나 되는 그 위에는 칠썩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공의 부인 수로가 이것을 보더니 좌우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구 꽃을 꺾어다가 줄 사람은 없는가.” 그러나 종자들은, “그곳에는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못하는

5) 조성면, 「상품의 미학과 리메이크의 계보학: ‘삼국지’의 경우」, 『21세기 문학』, 2007, 58~59쪽.

6) 박노준,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29쪽.

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127쪽.

8) 서철원, 『삼국유사 향가에서 수용의 문맥과 서정주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29쪽.

9)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15쪽.

곳입니다.”하고 아무도 안 되겠다 했다. 그 걸로 한 늙은이가 암소를 끌고 지나가다 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와서는 또한 가사를 지어 바쳤다. 그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삼국유사』, <수로부인 조(條)>)¹⁰⁾

향가 <헌화가>는 『삼국유사』에 한역가(漢譯歌)와 함께 실려 있다. 한역의 형태를 띠면서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도 향찰이라는 표기수단을 활용해서 우리의 감정(感情)과 사상(思想)을 담은 우리 문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다. 또한 본래의 작품이 있는 우리의 말을 한역(漢譯)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핀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어떠한 필요성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잠재(潛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학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헌화가>는 신라 성덕왕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推定)하는데, 현존 향가를 보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집단이나 의례에서 가창된 사실을 짐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창작시기를 알기 어렵다.¹¹⁾ 다만 신라 향가인 <헌화가>는 시공을 초월한 서정(抒情)성과 시대적 감성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사유(思惟)상 까지도 짐작하게 하는 노래이다. 길을 가던 노옹(老翁)이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에 올라 꽃을 꺾어다가 바친 이유는 단순한 애정문제만이 집약된 것은 아니라고 추리할 수 있다. 그 속에 그들의 특수한 문제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원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 | |
|-----------|-----------------|
| 紫布岩乎邊希 | 자춘빛 바위 가에 |
| 執桴乎手母牛放教遣 |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

10) 聖德王代, 純貞公赴江陵太守, 今溟州, 行次海汀晝饑. 傍有石嶂, 如屏臨海, 高千丈, 上有躑躅花盛開. 公之夫人水路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 從者曰, 非人跡所到. 皆辭不能. 傍有老翁牽犍牛而過者, 聞夫人言, 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11) 최철, 앞의 책, 29쪽.

吾盼不喻慚盼伊賜等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향가 <헌화가>는 신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노래이다. 또한 많은 신라 향가 작품 중에서 정확한 작품의 성격을 규명되지 않은 <헌화가>가 현대적으로 변용된 작품이 많다는 사실을 흥미롭다. 이것은 당대인의 생활상과 변모(變貌)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문학작품 속에서 여러 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 소재의 선호도나 지향하는 바가 변화되어도 우리 민족의 총체적(總體的)인 삶이 응축되어 전통으로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¹²⁾을 기억해야 한다.

Ⅲ. <헌화가>의 현대적 변용

<헌화가>는 세계 혹은 사회 속의 존재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이나 존재에의 근원적 물음을 제기하는 한 테마이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원형(原形)적 이야기이다.¹³⁾이런 <헌화가>를 화석(化石)화 된 가치로의 수용이 아니라 작품의 다양한 변모(變貌)와 수용(受用)을 통하여 작가나 대중이 인지하는 시대와 현실의 가치를 알게 하고 또한 작품을 새롭게 모색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화가>는 완결된 텍스트라고 보기 어려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진행형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할 <헌화가>를 변용한 현대소설·현대시·뮤지컬에서는 현대인의 실제적인 삶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애정문제와 신비스러움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작품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대인의 솔직한 삶의 욕망과 복잡한 현실의 의미를 관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학 안에 내재되

12) 이금희, 『한국 문학과 전통』, 국학자료원, 2010, 308쪽.

13) 김현실, 『한국 페러디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102쪽.

어 있는 삶의 법칙들과 상황을 상세히 살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현대소설 - 박범신의 『은교』

박범신의 소설 『은교』는 향가 <헌화가>와 마찬가지로 애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욕망(慾望)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작품이다. 젊음에 대한 욕망, 애정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점철(點綴)된 작품이다. <헌화가>를 모티프로 삼고 있는 소설 은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문단에서 유명한 시인 ‘이적요’가 죽은 후 일년이 지나고 변호사 Q는 이적요가 남긴 노트를 읽으면서 시작된다. 이적요의 유언대로 일년 뒤에 노트가 공개되고,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만큼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시만 전문으로 쓰는 이적요와 무능한 제자인 ‘서지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소녀인 ‘은교’와의 ‘삼각관계’를 다룬 소설이다. 일흔살의 노시인인 이적요는 천재적인 재능을 시에만 쏟은 사람으로 문단과 대중들에게 많은 찬사와 존경을 받는다. 서지우는 대학교 때 우연히 수업을 청강(聽講) 한 후 문학의 매력에 빠져서 전공을 버리고 이적요의 제자가 된다. 서지우는 스승의 가르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문학적인 한계를 느낀다. 이적요는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그 소녀를 가정부 대신 아르바이트로 고용한다. 이적요를 만나기 전부터 서지우와 은교는 이미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사이였다. 서지우는 이적요 시인의 허락하에 스승의 소설을 이용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또한 욕심이 과해져서 후에는 허락도 없이 스승의 미공개 단편소설을 훔치기도 한다. 그런 사이 이적요는 은교에게 사랑을 느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서지우는 은교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이적요 역시 서지우와 은교의 사이를 알게 되고, 또한 서지우가 자신의 소설을 훔친 사실도 알게 된다. 결국 이적요는 차를 고장 내서 서지우를 그 차에 태우

게 되고 그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든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알았던 서지우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만다. 하지만 스승인 이적요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1년이 지나고 Q변호사와 은교는 이적요의 노트와 서지우의 일기파일을 가지고 만난다. 사람들은 그 노트를 주목했고, 이적요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은 공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은교가 이적요의 노트를 서지우의 일기와 함께 불에 태우면서 소설은 끝난다.

이렇듯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유기적(有機的)으로 얽혀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개별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특별한 미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만 결국에 살아남은 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진다.

소설 속에서 향가<현화가>는 이적요와 서지우가 올라간 산 정상에서 서지우가 은교의 손거울을 절벽에 떨어뜨리게 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은교는 “엄마에게 선물을 받은 안나수이(Anna Sui) 거울”이라며 울상을 짓는다. 서지우는 “그깟, 손거울. 내가 사줄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은교는 “똑같은 것을 사도 똑같지 않아요”라며 표독스럽게 이야기한다.¹⁴⁾ 이때 이적요가 사오미터 뒹직한 위험한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내려가 은교의 거울을 주면서 이적요는 현화가를 외운다. 이 장면을 통해 <현화가>를 연상할 수 있다. 원 텍스트에서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그의 아내인 수로부인이 바닷가 절벽 위에 피어있는 철쭉을 탐냈으나 험한 바위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소를 몰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기꺼이 올라가 꽃을 꺾어 바치며 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¹⁵⁾ 노옹이 꺾던 꽃을 이 소설에서는 젊은 여인들이 지니고 있는 ‘안나수이’¹⁶⁾ 브랜드의 거울이라는 소재

14) 박범신, 『은교』, 문학동네, 2010, 320~321쪽.

15) <http://news.zum.com/articles/2211640?c=07>.

16)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미국인 패션디자이너 안나수이의 브랜드로 패션전반인 의류,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는 상표로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 등 전세계 50개국의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素材)를 통해서 원 텍스트의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화한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변용을 이행하고 있다.

현대소설로 재창조한 박범신의 『은교』는 원전의 기본모티프를 충실하게 변용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지니고 있는 미묘한 감정과 사안들을 욕망이라는 화두(話頭)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부대설화에서 늙은 노옹이 수로부인에 대한 규정하기 어려운 애정과 신비스러우면서도 다소 감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반하여 박범신의 『은교』에서는 적극성과 구체성을 갖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적 담론에 의하면 노인들은 두가지 유형으로 생산(生産)능력을 상실한 잉여적(剩餘的) 존재로 죽음을 강요받는 부정적 존재, 노인의 기억이나 경험·부를 인정하여 능력자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존재¹⁷⁾로 이루어졌다면 박범신의 『은교』에서는 젊음에 대한 동경과 규정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미묘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적극성을 띠는 새로운 노인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각자 다양한 욕망을 지닌 인물의 단상(斷想)을 보여주면서 현실적이고 생동감있게 서사하고 있다. 그동안 양지(陽地)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음지(陰地)에서 끓아가고 있던 한국사회가 가진 현 세대의 모습을 자화상처럼 여과 없이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노인의 성적욕망과 메커니즘(mechanism), 청소년 성(性)매매, 작품 대필(代筆) 등을 통해 항상 가려져있던 현대인이 지닌 삶의 단면을 실제적으로 그려내면서 현시대 대중의 반성(反省)을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 『은교』에서는 현재 우리사회를 인간존엄의 가치가 전도된 세상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고립(孤立)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고자하는 무의미하고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진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박탈당한 비극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소외와 고립된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현대인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시사해준다.¹⁸⁾

17) 이은경, 「죽음과 노년에 대한 문학적 연구-김태수 희곡작품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제 36호, 드라마학회, 2012, 140쪽.

이를 통해 복잡한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욕망의 가치를 파악하게 하는 한편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과 욕망으로 인한 현실의 소외와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적 용기와 적극적인 의지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준다. 대중에게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와 반성의 필요성을 설명해준다.¹⁹⁾

2. 현대시

향가 <헌화가>를 모티프로 삼고 있는 현대시²⁰⁾의 대부분이 원 텍스트

-
- 18) 김영지, 「'소외'의 감옥에 갇힌 현대인들-원고지와 동물원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제 24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1, 35쪽.
- 19) 하경숙, 「<공무도하가>의 현대적 변용 양상」, 『동양고전연구』 제 43권, 동양고전학회, 2011, 105쪽.
- 20) 광재구, 「헌화가」, 『사평역에서』, 창작과 비평사, 1983; 구석본, 「헌화가」, 『노을 앞에 서면 땅끝이 보인다』, 시와 반시, 1998; 권영해, 「헌화가」, 유월에 대파꽃을 따다, 모아드림, 2002; 권척학, 「누가 알랴수로부인」, 『가이아 부인은 외병중』, 뿌리, 1994; 권천학, 「수로부인」,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김규화, 「수로부인」, 『춘사』, 을유문화사, 1975; 김석규, 「신헌화가」, 『태평가』, 빛남, 2001; 김수목, 「헌화가」, 『나이테의 향기』, 문학아카데미, 2001; 김원태, 「연가7-헌화가」, 『마음은 거기 가 있다』, 푸른사상, 2001; 김호숙, 「헌화가에 답하여」, 『그리움이 아름다움일 수만 있다면, 천산』, 2003; 문충성, 「헌화가」, 『방아깨비의 꿈』, 문학과 지성사, 1990; 문호치, 「나의 수로」,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박수진, 「헌화가-사랑을 위하여」, 『나의 별에 이르는 길』, 영하, 1996; 박계천, 「수로」, 『달은 즈믄 가람에』, 문학세계, 1984; 박진섭, 「수로부인」, 『달개비같은 누이야』, 삶과 꿈, 1998; 박진숙, 「헌화가-혜초일기81」, 『혜초일기』, 문학세계사 2004; 김현숙, 「수로부인」, 『쓸쓸한 날의 일』, 청하, 1987; 박성웅, 「수로부인」, 『새』, 문학마을사, 2003; 박진섭, 「수로부인(水路夫人)」, 『달개비 같은 누이야』, 삶과꿈, 1998; ; 신술래, 「수로부인(水路夫人)」, 『밤나무는 여기 참나무는 저기』, 심상사, 1987; 양점숙, 「서울의水路부인」, 『모나리자에게 고향』, 오감도, 2001; 양준호, 「수로부인」, 『비녀와 간』, 신태양사, 1986; 여영택, 「수로 부인」 『엇가락』, 대일, 1994; 오창익, 「수로부인」, 『흔들리는당신에게』, 나라, 1996; 유안진, 「수로부인」, 『지는 꽃을 보며』, 어문각, 1986; 이정교, 「호산리 수로부인」, 『향기로온 걸림』, 하이퍼북, 2001; 이동재, 「한 인물 지나가다 - 수로부인에게」, 『세상의 빈집』, 문학과정

트의 일률적인 상징에서 벗어나서 다층적인 해석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²¹⁾

1) 복효근 <헌화가에 부쳐>

아무렴 그렇지/헌화는 노인네가 불러야지/대가리 새과란 높이 남 여편네
예쁘기로서니/

언감생심 마음에 담았다간/그게 불륜인 게여, 의업(意業)인 게여/ 보라/

타는 진달래는 여인의 속살빛깔로 고운데/때마침 훈풍에 서른 예닐곱 여인네
살내음 스쳐보아라/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봄은 돌아왔는데/어디선들 힘이
솟구치지 않으랴 /

아무렴 절벽은 높을수록 장관이지/백발은 세어 이계는/죽음도 대수롭지 않을
푼수는 되어서/스쳐간 거쳐간 사랑도 욱되지 않을 빛깔쯤은 되어서/ 잠은 암소
놓아도/제 외양간으로 알아서 돌아갈 이력은 되어서/어느 어여쁜 외간여자에겐
들/ 헌화가 한 소절 못 부르랴/

그 노래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함께 진달래 만발한 산굽이 돌다가/ 아내 곁
에 두고/

어서 백발로 폭삭 늙어버리고 싶은 오후였다/

복효근, <헌화가에 부쳐>, 『마늘춨불』, 심지, 2009

복효근의 시 <헌화가에 부쳐>를 원형비평에 기대어 본다면 동서양
과 고금을 막론하고 꽃을 꺾어 바치는 것은 구애(求愛)나 고백(告白), 혹
은 사랑의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아마 그 때문에 원 텍스트에서는 젊

계사, 2003; 이준후, 「아우라지, 수로부인」, 『아우라지, 추억에 대하여』, 시와
시학사, 1999; 이희자, 「수로부인」, 『흔 놓은 바람 떨트리면』, 마을, 1999; 장
호, 「실종자 10 수로부인」, 『장호 시집』, 베들북, 2000; 정석교, 「수로부인,
꽃 꺾어 바치오며」, 『꽃비 오시는 날 가슴에 꽃잎 띄우고』, 시와 시학, 2011;
최규창, 「오늘의수로부인」, 『환상변주곡』, 고요아침, 2007; 최상호, 「수로부인
에게」, 『고슴도치 혹은 엔두구 이야기』, 시학, 2008.

21) 이창민은 <헌화가> 관련 현대시를 원전 활용의 의도와 방법을 기준으로 삼
으면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창민, 「향가 현대시
화의 맥락과 의미 - <헌화가> 관련 현대시 유형 분류」, 『한국문학이론과 비
평』 제 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은 하인들도 쉽게 나서지 않았을지 모르는 이유이며 그 순간 노인이 나선다. 노인은 이제 사랑에 대해선 세속(世俗)적이거나 육체적인 탐욕(貪慾)을 떠나서 담담하게, 그리고 탈속(脫俗)한 경지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인은 색탐(色貪)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도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득도(得道)의 과정을 ‘심우도(尋牛圖)’로 설명을 한다. 득도와 마음을 ‘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소를 찾아 소를 길들이고 결국에는 소를 아무렇게나 방목(放牧)해도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복효근의 시 <헌화가에 부처>에서 “잡은 암소 놓아도”를 불교의 심우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름다운 여자를 아름답다고 보는 것은 노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탈속한 경지에서 비로소 아무런 거리낌도 사심도 없이 꽃을 꺾어 바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화자는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그럴 수 있는 정신적 경지를 가지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사심(私心)이 없으니 아내가 곁에 있어도 죄스럽지 않음을 형상화한다. 또한 그런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시적화자는 빨리 자신이 늙어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는 어휘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원 텍스트 <헌화가>를 노옹의 젊은 여인에 대한 애정갈구와 욕망이라고 보았다면 현대시 복효근의 <헌화가에 부처>는 세속적인 삶에서 초월하여 정신적인 해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심우도와 관련지어 해석하여 모든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원형(原形)적인 삶으로의 복귀(復歸)를 희구(希求)하고 있다.

2) 홍해리 <헌화가>

그대는 어디서/ 오셨나요/ 그윽히 바윗가에 피어 있는 꽃/
 봄 먹어 질북게 타오르는/ 춘삼월 두견새 뒷산에 울어/ 그대는 나리에 발
 담그고/
 먼 하늘만 바라다 보셨나요/ 바위병풍 둘러 친/ 천 길 바닷가 철쭉꽃/

바닷속에 흔들리는 걸/ 그대는 하늘만 바라다 보고/ 볼 붉혀 그윽히 웃으
셨나요/

꽃 꺾어 받아온 하이얀 손/ 떨어져 옴은 당신의 한 말씀 탓/ 그대는 진분홍 가
슴만 열고.

홍해리, <헌화가>, 『투망도』, 선명문화사, 1969

홍해리 시인의 시적 출발은 현실세계에 대한 탐구보다는 심미적 세계의 가치 추구가 우선한다고 진술하였다. 시인의 미의식(美意識)은 현실적 가치와 심미적(審美的) 가치가 충돌한 경우, 때로는 비장미(悲壯美)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는 세계와 있어야 하는 세계를 조화롭게 보려고 하는 우아미(優雅美)가 우세하다. 그런 면에서 홍해리는 형식적으로는 고전주의자이며 기질적으로는 낭만주의자이면서 전통에서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찾는 이 시대의 미학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²²⁾ 홍해리의 <헌화가>에서는 꽃을 꺾어 바친 노인의 노래인 향가 <헌화가>의 시적공간과 상황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시적심상을 한층 강화하여 연모(戀慕)의 감정을 한층 더 고조하고 있다. ‘질북게 타오르는 진분홍 가슴’의 시각적 심상과 ‘두견새 울음’의 청각적 심상을 결합하여 화자의 감정을 충실히 보여주면서 인간의 애정에 대한 욕망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자를 수로부인으로 설정하여 시적화자의 연모의 정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수로부인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수로부인의 내면세계를 그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에서 ‘춘삼월 두견새’와 ‘천 길 바닷가 철쭉꽃’은 자연물일 뿐 아니라 수로부인의 처지를 드러내는 비유(比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²³⁾ 현대시에서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작품들이 대부분 수로부인 설화를 충실하게 재

22) 신현락, 「해리(海里),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을 찾아서」, 홍해리 시선집, 『시인이여 시인이여』, 우리글, 2012, 202쪽.

23) 이성우, 「수로부인의 변신-삼국유사 수로부인 설화와 현대시」, 『비교문학』 31집, 한국비교문학회, 2003, 7쪽.

현했다면, 홍해리의 <헌화가>에서는 수로부인의 설화를 확장하는 과감함을 보여준다. 또한 그 관심의 초점이 수로부인의 내면에 대한 궁극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기존의 현대시들이 대부분 원 텍스트에 집착하고 있다면 홍해리의 시에서는 수로부인의 내면(內面)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여인의 낮선 사내에게 느끼는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인간이 지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게 접근하고 있다.

3) 권천학 <수로부인 1>

누가 알라/황홀을 꿈꾸는 내 순수의 기다림을//시린 눈웃음에 혼이 바셔/길 잃은 꽃무지들/

눈 먼 꽃 바람 아래 꽃정 풀어가며/하루살이 집을 짓고//두견이 몇 마리 날아와/

햇웃음을 토해 쌓는 꽃그늘 속에/길 잘못 든 짐승들을 달래어 가며/ 진다홍 얼룩을 지우다보면/ 설핏 저무는 봄/그 숲은 빗갈 속에 감추어진 내 기다림을/ 누가 알라//

분홍빛 그리움으로 꽃국 끓여대는 봄 기슭/속 깊이 타오르는 봄을/누가 알라//
권천학, <수로부인 1>, 『가이아부인은 와병중』, 한국문학도서관, 1994

권천학의 시 <수로부인 1>은 원 텍스트의 시적정서를 충실히 재현하기 보다는 인물의 확장된 심리를 표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원 텍스트에서 노옹과 수로부인을 중심으로 서사(敍事)를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시 <수로부인 1>에서도 수로부인과 노옹을 중심으로 그들의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해나간다. 원전 활용의 의도에서 해석을 추구하되 주제 내용보다는 인물 심리를 추정(推定)하는 데 중점을 둔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물 심리 서술을 골자로 하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 주지는 어디까지나 원전(原典) 해석에 있는 까닭에 특정 화법이 선호되지는 않는다.²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봄과 어울려져 여인의

24) 이창민, 「향가 현대시화의 맥락과 의미 - <헌화가> 관련 현대시 유형 분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68쪽.

그리움을 한층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시적화자는 내면 깊은 곳에 그리움을 지니고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이 찾아와주기를 간곡(懇曲)히 기다리고 있다. 다만 그것을 겉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내면 깊은 곳에 지니고 있는 욕망과 그리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원 텍스트는 노옹의 욕망을 중심으로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면 권천학의 시에서는 수로부인을 중심으로 여인이 지니고 있는 욕망과 인간의 근원적인 그리움과 기다림을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 광재구 <헌화가>

아나이여/ 화순군 한천/ 섬진강 서러운 가을 강변에/ 꽃잎처럼 가슴의 붉은
울음 쏟아버리고/

햇명석 위 한점의 고추만/ 붉디붉은 가을햇살로 쏟아내고 있구나/ 구름 가고
물 흘러가는 곳/

마음 또한 흘러/ 한 발짝 멈출 수 없는데/ 아나이여 그대 펼쳐놓은 서러운/
마음 가을강 물살 위에/

오늘은 누구의 한뭇힌 슬픔들이/ 저리도 검붉은 울음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가/ 사랑은 흘러 쉬지 않는 곳/ 섬진강 은물나루 자갈길을 걸으면/ 찢긴 발바닥
뜨거운 피에 젖어도/ 홀로 가는 울음으로 알지 못하고/ 슬픔인 양 피를 토하는
강물 곁에서/ 찢어진 한 송이 들국을 던져본다.

광재구, <헌화가>, 『사평역에서』, 창비, 1999

광재구의 <헌화가>는 원 텍스트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 텍스트와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다. 원 텍스트와 유기적 연결을 찾을 수 없는 작품이지만, 제목을 그대로 차용(借用)한 이유는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의 맥락과 원전의 사연 간에 존재할 지도 모르는 은폐(隱閉)된 연관성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심층적 의미가 좀 더 풍부해 질 가능성도 충분하다.²⁵⁾ 그러나 광재구의 시에서의 헌화(獻花)는 고단한 삶을 사는

25) 위의 논문, 75쪽.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위로를 주고 싶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인에게 꽃을 주는 행위는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의 선물이면서 찬양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원 텍스트에서 노옹이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꽃을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곽재구의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꽃을 주는 행위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적 정황으로 살핀다면 시적화자는 현실의 고단함과 삶에 대한 한(恨)을 지닌 여인에게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여인은 여전히 한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면서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한층 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원 텍스트에서는 노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했다면 이제 시적 대상을 여인으로 집중하여 여인의 삶에 대하여 한층 적극적인 서사를 하고 있다.

<헌화가>를 재창조한 현대시인들은 <헌화가>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창작자들이 대부분 늙은 노옹이 미모의 수로부인에게 꽃을 준다는 다소 신비하고 낭만적인 원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이야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시적 정황이나 인물들은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설명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시에서 보여주는 현실에 대한 깊은 탐구이며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시대적 사유와 함의과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사실로 볼 수 있다. 단지 노옹이 꽃을 꺾어주는 행위가 단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안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욕망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화가>를 현대시로 변용한 작가들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애정이나 욕망, 그리움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동조(同調)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고통까지도 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중들은 관념적인 문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유의 가치와 삶의 변화가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제적인 상황을 이해

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²⁶⁾

3. 뮤지컬 <수로부인>

뮤지컬과 문학은 같은 줄거리를 다루는 매체이지만 그 표현 양식이나 제작방식은 전혀 다르다. 뮤지컬은 보는 이야기지만 서사는 읽는 이야기이다. 뮤지컬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데 비하여, 서사는 관념적이고 은유적이며 주관적인 심적 환기작용을 이용해 이야기하고 있다.²⁷⁾ 뮤지컬 <수로부인> 역시 서사를 바탕으로 전달되고 있다.

뮤지컬 <수로부인>은 ‘말괄량이’의 모습을 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2011년 8월 7일 인각사(麟角寺) 학소대에서 공연되었다. 뮤지컬 <수로부인>은 <순순매아>와 <단군>에 이어 인각사에서 주관하는 세 번째 작품으로 삼국유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다. 인각사는 일연(一然)이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사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국유사』의 가치²⁸⁾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사찰(寺刹)에서는 공연예술인 뮤지컬을 선택해서 대중들의 시선을 모으고자 했다.

뮤지컬 <수로부인>은 인각사의 주지 도권스님이 직접 대본을 쓰고 작사를 했다. 틈틈이 대본을 쓰면서 공식적인 오디션을 통하여 대구지역의 유능한 배우들을 선발했다. ‘수로부인’으로 분(分)한 주연배우 권미희는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전수자다. 수로부인을 위해 꽃을 꺾어 바치는 ‘견우옹’은 조성진 마임씨어터 빈탕노리 대표가, 수로부인의 연인인 ‘순정’은 고봉조 경산1대학 방송연예과 외래교수가 맡았다. 노래패 ‘시노래

26) 하경숙, 「향가 제망매가의 실체와 현대변용의 면모」, 『동방학』 22권, 동양고전연구소, 2012, 308쪽.

27) 유육례, 「서동요의 현대적 변용」,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251쪽.

28) 한국에서는 일연의 불교적인 저작에 의해 한국의 신화가 보존되어 한국서사문학의 역사적 전개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크게 긍정되었다. (정삼균, 『한국중세서사문학사』, 아세아문화사, 1972, 98쪽.)

풍경'에서 활동하는 백진우가 곡을 썼고, 무용은 김나영 아리무용단이 맡았다. 유자효 시인이 작사가로 참여했고, 음악은 백진우 재즈밴드가 '라이브'로 연주하였다.

벼랑에서 꽃을 꺾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실경(實景)을 활용한 점도 원 텍스트를 충실히 재현하기 위한 시도라고 눈여겨 볼 수 있다. 인간사의 명물인 학소대 절벽을 무대로 삼아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도권스님은 수 천 만원의 비용과 그에 값하는 발품을 팔아가면서 공연을 준비하였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성공리에 이루어진 작품이다. 『삼국유사』가 만들어진 인간사에서 그간 잊고 있던 민족정서의 원형을 고취시키려는 도권스님의 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뮤지컬 <수로부인>에서는 무엇보다 고대의 남녀평등(男女平等)을 재조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념속에만 존재하던 고대인의 생활상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이 흥미롭다. 또한 원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신라 제33대 성덕왕 당시 강릉태수 순정공의 아내 수로부인과 얽힌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공연하는데, 무엇보다 삼국통일 이후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 퇴색했던 고대 신라(新羅)의 남녀평등 사상을 재조명해서 관심을 모았다. 극중의 수로는 화랑이 되기를 꿈꾸는 말괄량이로 그려지고 있다. 미인으로 이름난 수로를 얻고자 무수한 장정들이 경합을 하고 결국 순정과 수로가 혼인(婚姻)을 하지만 순정은 유교(儒教)이념을 강요하고 수로는 고대의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조건과 결합하는 현실세계의 결혼으로 고민하는 수로를 보여준다. 유교이념을 강요하는 순정과 남녀평등을 굽히지 않는 수로의 신경전을 보이면서 아울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번민(煩悶)하는 수로의 내면을 해학적인 서술로 담았다. 뮤지컬 <수로부인>에서 보여주는 수로부인은 유교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주장이 뚜렷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면의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여성상으로 그려내고 있다.²⁹⁾

29) 뮤지컬 <수로부인>, 「불교신문」 2011, 7월30일, 2740호.

향가 <헌화가>가 뮤지컬 <수로부인>으로 변용되어 공연되면서 원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주제적 측면을 그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남녀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의 고취라는 확장된 주제를 뮤지컬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원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품의 새로운 스토리를 구축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느끼게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뮤지컬 <수로부인>에서는 원 텍스트의 인물형을 세밀히 분석하여 공연콘텐츠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인 인물형으로의 변형을 시도하였다. 고전서사를 바탕으로 현대문화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작품이 원래 지니고 있는 주제와 이 시대와의 간극(間隙)을 메우면서 다시 살려내야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뮤지컬 <수로부인>에서는 기존의 원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다소 모호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인물형을 현실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다소 모호(模糊)한 원 텍스트에 흥미 있는 스토리라인을 접목하여 대중들에게 재미를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뮤지컬 <수로부인>에서는 원 텍스트의 시공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도 노옹과 수로부인의 모호한 애정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던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관심을 현대인의 시각에 맞게 적절하게 배합하고 있다. 또한 뮤지컬 <수로부인>을 통해서 그동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남녀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IV. 현대적 변용의 가치

고전문학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관련을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³¹⁾ <헌화가>도 관계적 의미를 가진 고전

30) 김풍기, 「고전문학 작품의 정체성과 그 현대적 변용」, 『고전문학연구』 제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13쪽.

으로서 현대에까지도 창작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생산되었다. 창작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면서 시대에 맞추어서 현화가를 가치 있는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용은 과거의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이 단지 과거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과거의 문학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 올바른 해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항상 현재에 대한 이해와 결부(結付)되어 있기에, 그 의미는 미확정적인 것이며 특정한 역사 시기와 행위자에 따라 변화가능 한 것이다.³²⁾ <현화가> 역시 적층문학으로 창작자의 당대 상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재창조한 작품이다. 또한 향유자들이 수용하면서 자신의 실천적 움직임과 이데올로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원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은 여전히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원작을 단순 반복하는 일은 비생산적인 행위이다. 원작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오늘날 설득력(說得力)을 얻기 어렵다면 원작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변형하여 담아 낼 필요가 있다.³³⁾

<현화가>는 여전히 규명(糾明)하기 어려운 다양한 성격을 지닌 매력적인 노래이다. 낭만적이면서도 신비한 성격을 지닌 노래이기도 하지만 욕망을 지닌 모호한 노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라 향가<현화가>에서도 문제가 되던 애정의 사안들은 여전히 현대의 대중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현화가>에서 젊은 여인에 대한 노옹의 친절과 헌신이라는 서사구조는 대중에게 신비성과 아울러 흥미를 갖기에 충분한 소재로 작용한다. 이 노래는 애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기본으로 하여 현대인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변용되어 소통(疏通)되고 있다. 고전작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대중의 관심과 열광

31) 김홍규, 「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한신문화사, 1992, 51쪽.

32)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139쪽.

33)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서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 25집, 우리문화회, 2008, 112쪽.

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대의 독자들은 일상사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현실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 그에 대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사실주의 정신의 매개항이 된다는 점에서 근대성이 반영된다.³⁴⁾

이처럼 현대의 대중들은 외형적인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보편(普遍)적인 사안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표현한다.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무겁기 보다는 공유하기에 편안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삭제(削除)와 첨가(添加)를 반복하여 끊임없이 수용되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장르와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대중들에게 쉽게 공감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의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때 초월은 자기가 욕망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³⁵⁾ 이런 욕망은 현대인에게 무기력과 고독을 가져오는 결과와 아울러 비틀어진 욕망을 추구하게 하고 공허함을 가져온다. 대중은 어떤 식으로든 그 공허감(空虛感)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인다. 이때의 대중문화는 대중의 공허함을 공격하여 자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소재를 찾아 나섰다. 이미 여러 차례 대중의 검증(檢證)을 받은 향가 <헌화가>는 욕망을 화두로 삼기에 충분한 소재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장르로의 변용을 통하여 현대인이 지닌 욕망을 피력하게 된다.

<헌화가>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에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인간의 일상과 욕망의 재현, 내면의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리하여 한층 더 인간의 본성(本性)에 주목하면서 현실의 장치에 몰입하게 만든다. 또한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과거로부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구애행위를 하는 것은 보통 남성

34) 강명혜, 「고전문학의 콘텐츠화 양상 및 문화콘텐츠를 위한 수업모형」, 『우리 문학연구』 제 21집, 우리문학회, 2006, 12쪽.

35) 한길사 편집부, 『가자 고전의 숲으로』, 한길사, 2008, 205쪽.

의 전유물(專有物)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에서는 여성도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반하여 남성들은 외환위기, 고용불안, 경쟁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면서 점차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그들은 욕망을 관철(貫徹)시키기에는 무기력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위로와 안정을 찾고자 노력한다. 남성은 억눌려 있는 욕망의 돌출(突出)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그들 역시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깨닫기 위한 무엇가에 정착하고자 한다. <헌화가>에는 불신과 위기로 점철된 오늘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대중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은 점차로 강화(強化)되고 있다. 기존의 저항과 일탈(逸脫)의 형식에서 위안(慰安)을 찾던 대중은 그런 문화적 코드에 정착하기 보다는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원형적이고 본래적인 것에 반응하고 회귀(回歸)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여전히 모호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적이고 순수한 함의를 지닌 <헌화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V. 맺음말

<헌화가>가 형성되었던 사회적 상황을 넘어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문맥에 처한 수용자는 이해의 연쇄에 자신을 개방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재문맥(再文脈)화되고 탈문맥(脫文脈)화된다는 사실은 <헌화가>가 관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³⁶⁾ <헌화가>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현대에 이르러서 창작자들에 의해서 변용되는 통시적(通時的)인 상황을 규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는 형상화(形象化)되며, 궁극적으로 향유(享有)층인 대중이 자신의 관계와 규정해 낼 수 있을 때 완성될 수 있다. <헌화가>는 현대에 와서 다층(多層)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화가>가 문학의 보편적 주제를

36) 황혜진, 앞의 책, 145쪽.

지니고 있거나 뛰어난 서정성을 바탕으로 기인(起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그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체계를 찾아야 한다. 예코는 수용자가 익숙한 메시지의 통사적(統辭的) 차원을 쉽게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가상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 정신적 친화(親和)성을 느끼며 작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³⁷⁾ 특히 문화적 상황과 미디어의 환경이 달라진 현실에서, 고전텍스트를 현대적으로 변용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 문학 유산을 바탕으로 풍부한 문학적 소재를 보장(保藏)받을 수 있다면, 고전 텍스트의 가치와 의미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 <헌화가>의 변용된 장르와 현대적으로 수용된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원본의 가치와 의미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한편, 현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장르와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와 현실의 맥락(脈絡)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헌화가>의 현대적인 변용 양상을 관찰하고 살피는 작업은 인문학적 위상을 높이는 데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헌화가>가 현대에 와서 변용된 작품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장르로의 소통을 통해서 원전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주제로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을 현대에 맞게 변용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원작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원 텍스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사를 만들고, 원 텍스트의 효과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원작의 재창조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³⁸⁾ <헌화가>는 신라의 노래이면서 민중의 노래로 그 유연성(柔軟性)을 검증받고 현대에까지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대중의 생활이나 시대상황을 충실히 묘사(描寫)하면서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헌화가>를 현대소설로 재창조한 박범신의 『은교』는 현실에서 지

37) U.에코·조형준역, 『대중의 영웅』, 새물결, 1994, 29쪽.

38) 하경숙, 「정읍사의 후대적 전승과 변용 양상」, 『동양고전연구』 제 47권, 동양고전학회, 2012, 102쪽.

니고 있는 미묘한 감정과 사안들을 욕망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젊음에 대한 동경과 미묘한 사건들에 대하여 적극성을 띠는 새로운 노인형을 보여주면서, 가려져있던 현대인의 삶의 단면을 실제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대중의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현화가>를 현대시로 변용한 작가들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동시에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고통까지도 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중에게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하여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닌 사유의 가치와 삶의 변모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뮤지컬 <수로부인>에서는 모호한 원 텍스트에 흥미 있는 스토리라인을 접목하여 대중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남녀평등사상과 민족의식(民族意識)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대중들에게 선사했다.

이처럼 향가 <현화가>는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이나 콘텐츠에서 작가의 세계관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대중들과 이분(二分)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를 이루고자 모색(摸索)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장르로의 소통은 원 텍스트의 매력과 가치를 훼손(毀損)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접근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고전문학 작품은 고리타분한 과거의 석화(石化)된 유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작되고 소통하여서 현재까지도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고전의 현대적인 변용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면서 원 텍스트의 바른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현화가>는 외로운 독서가이며 길을 잃은 대중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작품이면서 여전히 다양한 콘텐츠로의 변모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 있는 작품이다.

▷접수일 : 2012.07.05 / 심사개시일 : 2012.07.06 / 게재확정일 : 2012.07.25

<참고 문헌>

『삼국유사』

- 강명혜, 「고전문학의 콘텐츠화 양상 및 문화콘텐츠를 위한 수업모형」, 『우리문학연구』 제21집, 우리문학회, 2006.
- 구사회, 「<헌화가>의 ‘자포암호’와 성기신앙」, 『국제어문』 제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 김영지, 「‘소외’의 감옥에 갇힌 현대인들-원고지와 동물원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제 24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1.
- 김풍기, 「고전문학 작품의 정체성과 그 현대적 변용」, 『고전문학연구』 제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김현실, 『한국 패러디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
- 김홍규, 「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한신문화사, 1992.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 박노준,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 박노준, 「향가, 그 현대시로의 변용(I) - 「獻花歌」, 「薯童謠」를 대상으로」, 『한국시가연구』 5권, 한국시가학회, 1999.
- 박범신, 『은교』, 문학동네, 2010.
- 신현규, 「수로부인 조 수로의 정체와 제의성 연구」, 어문논집 32집, 중앙어문학회, 2004.
- 유경환, 「헌화가의 원형적 상징성」, 『새국어교육』 6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 유옥례, 「서동요의 현대적 변용」,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부, 1982.
- 이금희, 『한국 문학과 전통』, 국학자료원, 2010.
-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서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 25집, 우리문학회, 2008.

- 이승남, 「수로부인은 어떻게 아름다웠나- 삼국유사 수로부인조의 서사적 의미소통과 헌화가의 함의」, 『한국문학연구』 3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소, 2009.
- 이성우, 「수로부인의 변신-삼국유사 수로부인 설화와 현대시」, 『비교문학』 31집, 한국비교문학회, 2003.
- 이은경, 「죽음과 노년에 대한 문학적 연구-김태수 희곡작품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제 36호, 드라마학회, 2012.
- 이창민, 「향가 현대시화의 맥락과 의미 - <헌화가> 관련 현대시 유형 분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3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 임기중,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2.
- 조성면, 「상품의 미학과 리메이크의 계보학: ‘삼국지’의 경우」, 『21세기 문학』, 2007.
-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 하경숙, 「<공무도하가>의 현대적 변용 양상」, 『동양고전연구』 제 43권, 동양고전학회, 2011.
- 하경숙, 「향가 제망매가의 실제와 현대변용의 면모」, 『동방학』 22권, 동양고전연구소, 2012.
- 현승환, 「<헌화가>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시가연구』 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 R.스콜스·김상욱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하우, 1996.
- U.에코·조형준역, 『대중의 영웅』, 새물결, 1994.

Abstract

The modern transformation aspect and value of a song of <Heonwha-ga> /

Gyeongsuk Ha

<Heonwha-ga> is the old person who he with all cows which do not understand social position when hey I overcharge, and a pure heart argument open to the Sunjeong-gong's wife Surobuin envies a certain flower in used Hyang-ga on seaside precipice at the time of the 33rd Silla King Sungdok is the song which sang while old man gives a flower a song of offering of flowers. It is a work having the character that it is hard to prescribe a little that most various, a song of <Heonwha-ga> has interesting contents in Silla Hyangga, and must understand symbolic cord and philosophy of, altitude.

A song of <Heonwha-ga> is not prescribed only in Hyangga of Silla simply and transmits a live direction and meaning to the public through convenience to many genres. I let you expand phase of a work while he did not become extinct when I transcended space-time, and a song of <Heonwha-ga> was shortened in spite of various mediums and the development of contents with a change of cultural environment, and coping with a straw mat change sensitively.

Though it is lighted up through an existing pair novel, modern poetry, musical again newly in that, the flexibility is inspected in a base, and, as for the song of <Heonwha-ga>, it is loved new reason and interest characteristics by the present age public after having been firmly established in a letter.

And I reflect on way of life of the public while describing a situation of the times in substantiality while I begin to draw a way of life of modern people for the existence.

A view of the world of a writer is set in a work and the contents that transformed a song of <Heonwha-ga> the present age clearly, and, it forms

straw mat agreement not it being become the public for two minutes.

However, you must do understanding to various genres assuming a minute study and approach for the, original because you may damage charm and value of a House text.

Key words: Heonwha-ga , surobuin , modern transformation, recreation.